

# 扁桃腺切除術後 看獲

B. B. Whyte.

김 모 임 역

<연세의대 간호학과 조교>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이 편도선을 절제해 내는 수술을 받으며 또 매년 수많은 간호원들이 이런 어린이들을 간호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힘든 어린이 간호에다 그냥 방치해 두면 질식할지도 모를 어린이 또는 수술후 실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체내의 총 혈액량이 4 pints(1 pint 500cc)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의 간호, 사실상 편도선 절제후에 이런 합병증으로 괴로움을 받는 어린이의 수는 극히 적으나 간호하고 있는 어린이가 마치 이런 축의 하나인 것처럼 간호원은 모든 어린이를 잘 관찰하고 간호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침상은 macintosties(고무포)로 덮어서 준비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흡인기(suction apparatus)는 반드시 침상 곁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산소도 손쉽게 쓸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유연한 polythene 으로 된 것보다는 견고한 산소마스크가 훨씬 좋

다. 유연한 polythene 으로 된 것은 resuscitation 을 위해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속에는 오심 구토에 사용되는 용기 급 옷을 준비하고 이에 첨가해서 구강내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구와 냉수나 얼음물이 담겨 있는 bowl(보시기)를 준비해 둔다. 조그마한 해군용 Sponge(marine cotton ball)는 어린이 얼굴을 닦아주는데 꼭 유용하며 네모로 접은 치과용 gouze wipes 나 부드러운 휴지를 충분히 공급해 놓고 언제던지 맥박을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게 맥박 chart 를 준비해 놓는다.

## 수술후 체위

보통 기침 반응이 돌아올때까지 수술실에 있게 하였다가 기침반응이 돌아온 후 환자 침상으로 옮기고 편도선 절제 후의 전형적인 체위를 취해 준다. 이 체위는 semiproné(축와위)으로 머리는 옆으로 돌려서 구강으로부터 어떤 분비물이건 계속 흘러나올



편도선 절제후 곧 음식을 먹는 어린이들. 이는 목의 혈액 순환을 왕성케 하여 빨리 치유하도록 돕는다.

수 있게 하고 혀가 목뒤로 내려 앉지 않게 할 수 있는 체위이다. 적당한 시기를 봐서 베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싸서 머리맡에 베개 해주고 때때로 닦아주며 깨끗한 「파자마」를 입혀 편안케 해 준다.

수술 후 몇시간 동안은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다량의 구토를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보통 수술 후 처음에 먹는 물을 많이 오래 먹을 경우에 잘 포함으로 이런 구토 증상이 가실 때까지 깨끗한 흡인물로 바꾸는 일은 좀 연기해 두는 것이 좋다.

몸 큰 어린이들인 경우에는 구강 청소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아주 어린 어린이들은 간호원이 해 준다. 어

린이가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또 침상이 깨끗하게 바뀌었으면 환자는 안정된 가운데 밤새도록 잠을 자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 밤간호원의 관찰

편도선 절제수술을 받은 어린이에 대한 관찰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특별히 밤에 보살피는 간호원들은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이 관찰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끊임없는 방문과 관찰이 아주 뜻없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기 쉽다. 실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창백, 안절부절박 박수의 상승(빈맥)등이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맥박을 규칙적으로 측정해

야 하는데 처음은 데 15분마다 측정하고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이 간격을 늘린다. 맥박의 수와 양의 두 성상을 기록하고 어떤 특기할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구강이나 비강으로부터 흘러 나온 혈액량을 기록할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되는 연하운동은 혈액이 목뒤로 넘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혈액을 검사 측정해야 하고 신선한 혈액인지 보고할 것이다. 혈액의 색깔에 대한 기록을 남길 것도 중요하다. 만일 창백하면 출혈을 의미하고 자반증은 폐색을 의미한다. 치아의 손실여부를 주의하여 보고 수술전 기록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장기 작용 항생물질로 Triplopen 같은 것을 주사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환자가 안절부절하거나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Omnopon gr 1/3 (한살에 1 minim)같은 진정제를 보통 처방내어 투여한다. 항상 안절부절한 어린이에게 진정제를 주면 때로는 후에 출혈을 예방하기도 한다. 결국 어린이들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은 목이 아프다던지 귀가 아프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Disprin gargles(디스프린 함수)를 식사전 약 20분에 함수하도록 한다. 만일 적혈구 수가 수술후에 적을 때는 철제 혼합제를 처방내는 것이 보통이다.

### 아침 식사하는 것 본보기

수술 직후 물을 소량씩 먹이며 또 구강 간호를 해줄 때 어린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곧 고형음식을 취하도록 장려해 준다. 모든 밤간호원이 알다시피 병실에 있는 어린이 하나가 수술후 아침에 아무런 불평도 없이 조반을 먹으면 다른 어린이들도 이 본을 따서 그대로 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간호원은 토스트와 cornflaks 등 그들이 먹으면 좋겠다고 권해 보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강제로 권하지는 않는다. 점심시간엔 조금만 도와 주는 것이 좋으며 혼자 다 끝내도록 강조해 준다.

진정제 함수 (analgesic gargle)가 꽤 도움이 된다. 물론 구강간호는 매 식사후 파다 해준다. 수술후 곧 음식을 먹도록 설득시켜 먹임으로써 복부위의 혈액 공급이 좋아져서 속히 치유될 수 있게 하며 tonsil bed(편도선근)에 slough(부육)가 좀더 빨리 분리되어 제이차 감염을 적게 한다. 적당량의 유동식(fluid) 섭취는 근본적인 것이며 속히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어른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부끄들이 흔히 식사시간에 방문하면 특별히 어린이에게 고형음식을 먹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서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를 먹도록 유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만일 체온이 정상이면 합병증은 없는 것이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간호원은 구강청결, 함수

(gargle)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부모는 아무 때나 방문해도 좋다고 장려하고 이 어린이가 퇴원할 때는 군중이 모이는 장소, 극장, 학교 등에 당분간 보내지 않도록 일러준다. 그리고 외래진찰소로 약 3주간 다닐 것을 일러준다. 동시에 출혈이 된다면 가 하면 곧 그들의 담당 의사를 방문해야 함을 경고한다. 수술후 약 6일째에 출혈이 일어나기 쉽다.

### 질식과 출혈

질식(asphyxiation):

폐쇄가 일어나면 어린이 둔부르 높이이고 견갑 blade 사이를 손을 펼쳐서 두들기면 기도가 깨끗해 지기도 한다. 교대로 두부와 견갑부를 침상가로 오게 하는 것이 좀더 쉽다.

그리고 보통 방법으로 구강을 닦아낸다. 악근(턱의 근육)의 경련이 있어서 턱과 구강 혀를 내밀고 있게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므로 peg(색)이나 mouthgag(개구기)를 필요에 따라 삽입해서 입을 벌려야 한다.그다음 압설자를 쓰고 흡인기가 필요하게 된다. 기도가 깨끗하지 못하면 산소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출혈(Bleeding):

편도선 절제수술후 출혈치료에 대한 오래된 격언이 있다. 그 격언은.

(1)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일어나 앉히고

(2) 진정시키고

(3)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보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도 진리로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어른들이 놀라던 쉽게 이 놀람이 비록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이해치 못하면서도 어린이에게 파악되어서 안절부절하게 됨으로 어린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신적성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를 일어나 앉힌다.(이유는 출혈이 되는 부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안절부절한 상태와 근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제를 주고 tonsil bed(편선근)로 부터 용혈피를 의사가 제거하면 필요로 되는 치료는 모두 한 것이 된다. 때로는 tonsil bed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시행될 때는 환자가 조용해야만 하고 또 혈조적일 때만 시행될 수가 있으며 한 손으로 sponge를 집은 holder를 tonsil fossa(편도선와)를 재봉할하는 수도 있다. 실혈이 많은 어린이에게 수혈이 필요로 되는 수도 있다. 또 실혈이 있는 어린이는 이차적 출혈의 모든 위험성과 더불어 감염되기 쉽다는 사실은 첨가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실이다. 의사가 그의 상태에 대해 만족할 때까지 환자를 침상에 누워 있게 하고 어떤 종류의 철제약을 처방내어 무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합병증도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가 입원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서 병원에 잠깐 머물렀다가 곧 그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